

세종대학교 201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가) **합리적 소비자**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대안을 비교한 다음, 가격에 비해 효용이 가장 큰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편익과 비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선택이 왜곡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 계획에도 없던 충동구매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하는 것 등이 그런 예가 된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인의 경제생활에서 개인의 소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사람이 구입한 상품을 보고 자신도 따라서 구매한다거나,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용 후기를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 등이 그런 경우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상품에 대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상품의 품질보다 타인의 평가에 더 신경을 쓰는 소비 행태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두 시간째 산수 시험 시간이 되어 나는 우연히 박원하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게 되었다.(...) 그 애는 힐끔힐끔 시험 감독을 나온 판 반 담임을 훑쳐보며 방금 말끔히 지운 곳에 얼른 이름을 써넣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엄석대의 것이었다. (...)

“너, 아까 뭘 했니?”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나는 박원하에게 가만히 물어 보았다. 원하는 비실비실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 산수가 내 차례였어.”

“산수가 네 차례라니? 그럼 다른 과목도 누가 그러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석대는 차례를 공정하게 돌리기 때문에 손해는 모두 비슷해. 따라서 석대만 빼면 우리끼리의 성적순은 실력대로야. 너같이 재수 좋은 애가 우리 앞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말이야.”(...)

하지만 그 때, 이미 나는 갑작스럽고도 세찬 유혹에 휘말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유혹이란 방금 알아 낸 이 엄청난 비밀로, 어느 누구도 용서할 리 없는 무서운 비행의 이 움직임 수 없는 증거로, 이미 끝난 석대와 의 싸움을 뒤집어보자는 것이었다. 담임선생이 아무리 무정하고 성의 없다 해도 석대의 그 같은 비행까지는 묵인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석대를 잡기만 한다면 지금껏 그를 두둔해 온 담임선생에게 멋진 양갓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믿지 않고 억박지르지만 한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멋진 양갓음이 될 것이었다. 억눌러 참고는 있어도 실은 괴로워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이들에게 나는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를 것이고, 쓰라림으로 포기해야 했던 자유와 합리의 지배가 되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다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고 시험 감독으로 들어온 담임선생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부터 들떠 있던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미 있는 것은 모두가 심드렁하고 새로움과 변화는 오직 귀찮고 성가실 뿐이라는 듯한 그의 표정에서 라이터 사건 때의 참담한 실패가 떠오른 까닭이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코앞에 들이대지 않는 한 그의 둔감과 무관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성싶었다.

거기서 나는 다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꽤 줄 수 있는 그들이었으나, 그들이 갑자기 내 편이 되어 그때껏 묵인하고 협조해 오던 석대의 그 같은 비행을 담임선생에게 밝혀 주리라는 보장 또한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거기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도 석대의 공범자들이 아닌가.(...)

그때는 이미 두 달 가까이 맛들인 굴종의 단 열매나 영악스런 타산도 나를 말렸다. 사실, 이런 저런 어른들 식의 정신적인 허영을 빼면 석대의 질서 아래 있다고 해서 내게 불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등을 넘보지 않는 한 이등은 그리 힘들이지 않고도 내 차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세종대학교 2016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지

(다)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모든 요인을 방정식에 넣어서 그 요인들이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할 수는 없을까? 오늘 아침에 나는 이런 일을 상상했다. 사회학자, 수학자, 역사학자, 생물학자, 철학자, 정치가, 과학소설작가, 천문학자 등 지식의 모든 지평에서 온 남녀들이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장소에 함께 모여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클럽'을 결성한다. 그 전문가들은 갖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면서 자기들의 지식과 직관을 결합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무 모양의 도표를 만들어 갈 것이다. 미래에 지구와 인류와 인류의 의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표시한 수형도를 말이다.

그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때로는 그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전망을 도덕적 판단에 매이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축적된 전망들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의 데이터 뱅크가 될 것이다. (...)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최소 폭력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또한 어떤 결정이 지금 당장에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피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가능성의 나무는 최소 폭력의 길을 찾아내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그들과 정치적 협정을 맺게 해 줄 것이다. 가능성의 나무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것이다.

1. 제시문 (가)에서는 합리적 소비를, (다)에서는 합리적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제시문에서 나오는 합리성의 개념을 비교 기술하라.(400~500자)

2. 제시문 (다)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소 폭력의 길'이 무엇인지를 요약 기술하고, 제시문 (가)와 (나) 모두를 논거로 활용하여 '최소 폭력의 길'을 비판하라. (1100~1200자)